

# OPINION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 김상훈의 세상읽기

### 특별검사 제도에 대한 단상



주필

#1.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해 기소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를 말한다. 주로 중대 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했는데 1868년부터 8년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을 임명했기 그 시초라고 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때다. 이 사건은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 측근들이 당시 민주당 전국본부에 있는 호텔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다룬 것이다. 닉슨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임명한 특별에 의해 이 사실까지 들뜬이 나고 결국 사임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대통령이 관행처럼 임명했던 특별은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미국의회는 1978년 법원이 특별을 지명하는 내용의 '정부유리법'을 제정하며 제도화했지만 삼권 분립 위반 논란과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9년 폐지됐다.

현재는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을 임명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졌던 미국 특별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 법무부가 특별 수사를 결정, 18년만에 부활했다.

#2.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특별이 폐지된 해인 1999년, 정작 우리나라에는 특별이 도입됐다. 그 것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다.

여기에는 당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2대 의혹사건'이 있었다. 대기업 회장 부인이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옷로비 의혹사건'과 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등이다.

현재 검사장 부인 등 검찰이 연루돼 중립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특별 필요성은 커졌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범한 이들 특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옷로비 특별은 '실재한 로비'라는 결론이 나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파업 유도 특별도 검찰 개입이 아닌 조폐공사 전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별은 2000년 대 이후에도 큰 사건이 있을때마다 등장했다. 2001년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산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호용 게이트 특별.

2005년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수사하는 유전개발 의혹 특별,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 2010년 스폰서 검사 특별 등등.

또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5년간 총 12차례 특별이 출범했는데, 수사 대상 중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11명이었다고 한다.

#3. 올 여름 대한민국은 유난히 뜨겁다.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폭우와 극한 폭염이 연일 반복되는 기후적 영향에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흐트러졌던 국정관리의 실재를 드러다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특별',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 '순직해병 특별' 등 3개의 특별이 동시에 가동돼 사회적 열기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상 초유인 3개 특별의 동시다발적인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시기,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각종 일탈과 추문 등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 국정관리 책임자들은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굴종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을 일삼아 왔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한심한 작태들이 수사결과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군 고위간부들의 자신만을 위한 일탈 행동, 그리고 종교인들의 현실 권력에 부하되듯했던 흔적들까지...

소위 한국사회의 지배권력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번 특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특별이 앞으로도 성역없는 수사를 펼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권력형의 비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 기고

### 서금석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 익살스럽게 다가온 입추

것 같다. 4년마다 하루를 더해져서 그 서운함을 달랠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의 길이를 이렇게 나누고 보태고 시간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마치 마술 같기도 하고, 속임수 같기도 하다.

중국 화북 지방에서 24절기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도 곤혹을 치렀다. 30시간과 24시간 체제는 한동안 경쟁했다. 결국 하루와 1년을 각각 2등분을 하고, 또 3등분도 그리고 4등분을 해도 무난한 24시간 절기가 승리했다. 사람의 생체리듬과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데 24시간 체계가 가장 무난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았다. 24절기 중 춘분과 하지, 추분과 동지 등 4개의 절기만 천문학적 계산에 맞추고, 나머지 절기는 1년의 길이를 24로 나눠 날짜를 잡았다. 이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는 24절기와 일치할 수가 없다. 절기는 상징화됐다. 과거의 시간은 박제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창조된다.

그래도 의미가 크다. 애초 인류가 시간을 만들 때 이유는 분명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옛 사람들이 그 많은 절기를 만들고 명절을 쇠고,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시간을 만들고 모임을 가졌다. 함께 먹고 즐기고 서로를 기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질서가 됐다. 통치자는 이 그림을 놓치지 않았다. 동·서양의 모든 위정자는 시간을 통일함으로써 땅덩이 안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었다.

8월 들녘 농부의 손발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무더위 철이건 장대비가 쏟아지는 때든 간에 가을 추수까지 한시름도 놓을 수가 없었다. 여름 잡초로 가을 수확을 망칠 수 없었다. 땀방울이 스러지고, 폭우에 떠내려가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눈발에 있었다. 기력은 떨어지고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 행여 잊을새라 그사이 명절을 많이도 만들어 놨다. 유두절을 시작으로 철월 철서과 백중이 들어왔다. 여름 절일 대표적인 삼복(三伏)도 빠질 수 없다.

올해 말복을 좀 이르다. 입추 후 첫 번째 경(경)일이 말복이다. 입추가 8월 7일이고, 8월 9일이 경술(庚戌)일로 입추 후 첫 번째 경(경)일이다. 사실 삼복(三伏)은 폭염 추위보였다. 북날에 쉬라고 관리들에게 휴가를 줬다. 쉬는 날이고 보신하는 날이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쉬는 것이 보신이다. 그 총정된 몸으로 여름 농사 베풀었다.

'고려사' 달력편 입추 후 15일 중, 초후(5일)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 차후(5일)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든다. 그리고 말후(5일)에 곡식이 익어간다. 내용상으로 완전한 가을이다. 고려가 중국의 달력을 가져다 썼으므로 고려 날씨가 중국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추는 가을이 아니다. 마치 저기 멀리에서 가을이 희미하게 손짓하는 것과 같은 때다. 그런데도 우리는 머뭇거리며 찾아와온 입추를 반기고 믿는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가을바람 곧 본다.

## 기고

### 김광훈

광주 지철협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문 위원장



### 에너지의 날을 아시나요

운 달로 기록됐다. 이는 강력한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거나 상승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라는 임계치를 21개월 연속 초과하는 기록은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고온과 함께 폭우, 가뭄, 산불, 강력한 열대성 폭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에너지의 날은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오후 9시부터 5분간 소등하는 전국민 동참 행사는 잠시나마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국민이 함께 참여했을 때 얻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은 비단 에너지의 날 하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거창한 노력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몇 가지의 실천 행동을 소개하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26~28도)와 냉방기 사용 시 문을 닫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낮 시간에는 전등 대신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빨래는 건조기 대신 자연 건조를 이용하는 것도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옷을 입어 냉난방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에너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할 때, 비로소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불을 끄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큰 결음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사설

### 전남도 국가수소특화단지 유치해야

전남도가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지정공모에 영광 대마산단을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단지로 만드는 공모 계획서를 최근 제출했다.

영광 대마산단 배후부지(2만5000평)와 대마산단(7만평)에 총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1단계로 500MW급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후 향후 1GW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경제적·안정적 청정수소 생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국내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기술) 관련 기업, 고등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 생산에서 저장·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게 핵심 전략인 것이다.

일단 전남은 서남해안의 국내 유일 원전과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청정수소 생산 최적지다.

지장·운송 또는 활용 중심인 기존 강원·경북의 수소특화단지와 달리 전남은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단지 구축에 조정을 맞춰 차별성 또한 갖췄다.

여기에 전력계통 포화문제 완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다 국내 굴지의 수소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 등 20여 개사가 벌써부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정도도 경쟁력도 있다.

무엇보다 지정 효과 또한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기업의 청정 수소 관련 대규모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서부권의 값싼 청정수소를 여수광양만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청정수소 생산과 석유화학·철강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국가 탄소중립 실현, 서부권 신성장 산업 거점화에도 도움이 된다. 산업부는 향후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전남도가 반드시 국가수소특화 단지를 유치하길 바란다.

###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매출 상승 이끈다

광주·전남에 '골목형 상점가'가 뜨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이끌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밀집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광주·전남은 초기부터 지정이 활발했다. 첫 해 광주 2개로 시작한 이래 2021년 광주 4개, 전남 2개, 2022년 전남 1개, 2023년 광주 1개, 전남 2개, 2024년 광주 57개, 전남 8개 등 매년 추가 지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7월 기준 광주 238개, 전남 13개 등 251개나 더해졌다.

이에 지역 골목형 상점가 수는 광주 302개 전남 26개 등 총 328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799개중 41%나 되는 수치다.

광주·전남에 유독 골목형상점가가 많은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자율 지정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광주 서구는 지난 6월 18개 동 119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1만 1426개 점포를 추가 등록하기도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은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골목 상점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상권이 침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광주·전남중기벤처재단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업체 대표 98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 36명이 매출액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지정 전보다 매출이 평균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형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나가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